

책에서 풍기는 신선한 꽃향기

여러 분야 전문인이 모여 만든 《약초의 꽃말》

꽃말 쓰인 에 라틴어 학명

독미나리...흔히 불리는 말

"당신 나의 죽음이 될 거예요"

셰익스피어의 연극, 영어 학명 리어왕에 나오는 대사 인용 본문 내용이다.

치료나 다른 용도로 실제 쓰이는 예

고전적인 삽화처리로 독미나리의 신화적 꽃말에 독미나리의 라틴명에 얹힌 신화적 어원, 깨끗한 디자인 효과.



어울리는 회화를 독특한 중세 점성술과 마법에 쓰였던 이야기 분위기로 처리.

정성스러움은 어느 경우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다. 출판에 있어서도 당연히 그렇다. '정성스럽게' 낸 책은 독자들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책을 그렇게 만든 이들에게도 일의 보람을 나누어 준다. 정성껏 기획하고, 정성스레 원고를 작성하고, 정성을 다

해 편집하고, 정성을 들여 인쇄하고 제본하고, 깨끗하게 서점대에 올려 놓는다면 얼마나 기분좋은 일일까!

해의 저자물들을 기획 산책하는 것은 어쩌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정성스러움'을 배우고자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책이라

는 형태로 드러나는 갖가지 가치들은 바로 이 '정성'이 만들어 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선보이는 책 《약초의 꽃말》은, 영국 출판사 파블리온 북스에서 올해 출간한 것으로, 영국인의 '정성스러움'이 독특하게 빛어낸 작품이라 할 만하다. 원고의 수준이나 디자인, 편집, 인쇄 및 제본 방식에서, 영국 출판인이 갖고 있는 '장인정신(匠人精神)'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다.

표지의 디자인과 양장 제본 상태부터, 면지와 속표지 처리, 목차 디자인, 원고와 사진과 그림을 깔끔하게 처리하는 편집 디자인, 인쇄 상태에 이르기까지 눈여겨 볼 만하다.

이 책의 기획 포인트는 문화의 '여성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데에 맞춰져 있다. '여성적'이라는 형용사가 뜻하는 것을 명확히 정의할 수는 없지만, 찬찬히 뜯어볼수록 그런 느낌이 진하게 다가온다.

가로 14×2cm, 세로 20×1cm. 96쪽의 아담한 판형.

책의 내용에 맞게, 표지와 본문을 이어주는 책 앞뒤의 면지(end paper)를 약초 그림으로 인쇄했을 뿐만 아니라, 라벤더(꿀풀의 일종) 향으로 처리하고 있는 게 특징이다.

책을 펼칠 때마다 신선한 라벤더 향기가 자욱하게 풍겨 나온다. 책의 편집을 살펴보자. 본문과 사진과 그림의 처리, 타이포그래피의 배합을 눈여겨 볼 만하다.

책 마지막에 나오는 감사의 말에 보면 이 책이 여러의 '정성'으로 나온 작품을 알 수 있다.

독특하게 사진 처리된 그림들은, 브릿지맨 아트 라이브러리의 도움으로 선정되고 제인 스토크만이 찍은 것으로서, 예로 든 뒷 사진은 런던 소재 화인 아트 소사이어트가 소장하고 있는 A. F. 샌더스가 그린 '왕의 딸' 그림의 일부임을 알 수 있다. 약초들 삽화는 매리 에반스 픽취 라이브러리가 제공한 동판화들이다.

라벤더 향기는 펜탈리곤 향수회사에서 제공한 것이며, 싱가포르 티엔 화 인쇄소에서 인쇄와 제본을 했다.

이처럼 여러 분야의 전문인들이 모여 '정성'으로 빚어낸다면, 어찌 향기가 나지 않을 수 있을까. 이 현대의 삶이란 게 갈수록 전문성은 강조되는데 '정성'은 메말라가니, 향기는 커녕 황량한 모래 바람만 불어온다. '정성스러움'은 어느 경우에도 가장 기본이 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자료 제공 : 임프리마 코리아